회비인하와 학생활동의 전망

——18대 총학생회를 진단한다

□머리말

신학기를 맞아 대학의 자율권 확보는 많은 대학인들의 바램과는 달리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학생활동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학생회비의 감축, 지난 1월에 있었던 서울대 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측의 요청없이도 정치성을 띤 시위에는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는 발표, 오리엔테이션의 총학생회주최 금지등은 대학에서 자율을 거의 찾아볼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학생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학원가에서 시위를 불식시키겠다는 당국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자율화 조치이후 유화국면에서 지난해 「학원안정법」 시비에서부터 시작된 강경국면이 구체화됨으로써 각 대학 총학생회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본교의 경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학교측과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서 어느정도 희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학교당국의 자율권이제한되어 있고 학생회비 감축등에 따라 앞으로 학생활동의 상당 부분이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학생회비 감축과 이에따른 교지 『고황』의 발간문제, 그리고 수원 총학생회장 재선거를 살펴본다.

□학생회비 감축

학생회비 감축에 관해 이재호 부총학생장은 『총학생회를 인정하면서도 그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학원탄압 정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문교부의 정책에 따르면 학생수가 1만5천명이상의 대학은 3천원, 1만명에서 1만5천명 이하이면 5천원, 1만명 미만이면 6천원을 학생회비로 거둘수 있게 되어 있다. 본교의 경우, 학생회비를 집행하는 총학생회가 서울과 수원 캠퍼스에 따로 존재하므로 당연히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의 학생수를 따로 계산해야하나 관계당국의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합께 계산되어 학생회비는 종전 6천원의 반액인 3천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따라 설정 학생회비 총예산은 2천8백만원(3000×9600)이다.

학생회비는 말할 것도 없이 학생활동을 운영하는데 쓰인다.

그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학생회 (단대포함) 예산과 공동예산 (서클연합회, 학회연합회, 언론협의체, 복지위원회, 응원단 대의원총회의 예산) 을 4대6의 비율로 분배하고 총학생회에 편성된 예산은 다시 총학과 단대학생회간에 4대6의 비율로 분배 사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의 경우 약 2천8백만원의 총예산중 총학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8백9십여만원에 불과하며 작년 6백여만원이던 서클연합회의 예산은 1백9십여만원으로 삭감되었다. 총학에 배분된 예산은 1천여만원이 드는 축제조차 치르기도 어려운 액수이고 보면 앞으로 계획된 행사의 개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여기에다 총학의 수익사업이던 여러 특강들과 자동판매기 운영이 시위자금으로 쓰인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금지된 상태여서 상황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행사예산에 대해 조광구 총학기획부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단대 보조금을 줄이고 교비지원을 바랄 수 밖에 없다』 고 말한다. 현재 단대 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48만원. 이에따라 단대는 행사를 가질 경우 각 단대에 배분된 예산만으로 행사를 치루어야 한다. 각 단대에 배분된 예산은 문리대(3백10여만원), 정경대(1백90여만원), 의대(1백20여만원)를 제외하고는 1백만원을 넘지못하고 있다.

학회 연합회의 경우도 작년의 3분의1밖에 되지않는 1백90여만원을 배부받아 각 학회가 자체 행사를 가지려면 학회비로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회비의 용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학회비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태이고 몇개과의 경우 학회비 납부 실적이 좋지않아 학회비를 내야만 등록고지서를주기도했다. 학회비문제에 있어 학회원들은 불평만하지말고 학회행사에 적극 참여 자기 몫의 찾아야겠고 각 학회장들은 학회비의 쓰임을 행사때마다 학회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총학생회 기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학은 교비지원을 바라고 있으나 이에 관해 한병구 학생처장은 『학교로서는 문교부의 정책이라 현재로서는 교비지원을해줄 길없다』고 말하고 있어 교비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또한 교비지원을 받는다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비지원을 받을 경우행사자체및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이 많아질것으로 예상돼 진정한 자율권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다.

총학은 학교와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고황』 발간 문제

학생회비가 삭감됨에 따라 교지 『고황』 30호의 발간계획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민중시대를 위한 제언」 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될 예정이던 『고황』 30호는 원고내용과 예산문제로 아직 발간이 되지못하고 있다. 문제가 된 원고는 「민중의 개념과 실체」 「민중민주주의 이론」 「80년대 노동운동의 재양상」 등의 외부 필자 글과 고황 편집부에서 엮은 노동문제에 관한 글로 현재 많은 부분들이 수정, 삭제하여 게재키로 학교측과 합의가 된 상태이다.

이러한 합의하에 다음주중에 인쇄에 들어 갈 예정이나 예산문제로 발간일자는 불분명한상태이다.

2만2천부를 발간할 경우 2천2백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종전에는 교지 발간비로 학생회비안에 1인당 6백원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폭적인 학생회비 삭감에 따라 이의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등록금 회비외에 다른 명목의 돈을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문교부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 교지발간비의 징수도 불가능한 사정이다. 더우기 교비지원도 현시점에서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고황」 30호가 타결을 보아 발간된다해도 원고의 부분적 삭제와 경비를 줄이기 위해 졸업생들에게는 분배하지않는 후유증이 남게된다. 또한 『고황』은 전년 2학기 예산과 발간 당해년 1학기예산을 합쳐 발간되기 때문에 학생회비가 다시 증가하지 않는 한 올 2학기 예산이 없어 교비지원이 없는한 내년 「고황」은 나오지 못하게된다. 고황 편집부원들은 좋은 원고를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 교비지원외의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재선거

작년에 후보자자질문제와 선거과정의 많은 모순으로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가운데 새학기를 맞은 수원캠퍼스는 학기초 총학생회장재선거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학기말 대의원총회가 구성돼 여러차례 선거불인정과 재선거방안을 논의했으나 그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학기들어 선거에 따른 몇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첫째, 임후보자 자격으로 작년 입후보자들에 대한 피선거권 문제, 둘째, 런닝메이트 문제, 세째, 신입생에 대한 선거권 부여문제등이 그것이다.

재선거위원회(각대학장 6명, 교수3명)는 지난 7일 오후 2시 학생차장실에 자리를 마련하고 재선거의 경우 야기될 문제들을 논의했다.

9인 총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하지 않은 가운데 총학선거의 준비기관으로 학생과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런닝메이트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입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작년 입후보자이라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피선거권을 주기로 인정했다. 그러나 의견의 대립이 생긴 부분은 신입생의 선거권 부여문제로 단대학생회장들은 『1학년도 학생회비를 낸 엄연한 경희의 가족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응순 학생처장은 『재선거이므로 작년 선거문제이므로 사정도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또 한번의 선거실패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해 이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논의된 문제들은 공식적인 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각과당 2명 총108명)가 오는 11일 구성돼 결정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요 선거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일=대의원총회구성 ▲18, 19일=입후보자 등록 ▲1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단대 1명, 상임위원 1명씩 총13) ▲24일=후보자 1차 유세 ▲27일=2차 유세 ▲31일, 1일=선거완료 ▲4월7일=총학생회 발대식

한편, 학회연합회 발족을 위한 학회진 모임이 지난 7일 오후4시 외국어교육관 321강의실에서 있었다.

총학재선거와 학회연합회발족을 주안건으로 논의돼 지금까지의 경과보고 대책방안등을 가지고 앞으로 대의원총회 구성등을 토의했으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11일, 대의원총회를 결해 다시 모이기로 했다.

학생회비가 50% 감축되고 학생회장 선거세칙이 문교부로부터 삭제당하는 현실에 재선은 더더욱 어려움이 뒤따른다. 새로 입학한 1학년 선거권문제등의 숙제들은 학생측과학교측의충분한 논의와 대화를나눈뒤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는 작년의 선거를 본 학생이라면 누구나가 다 바라는 바일 것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된 일련의 상황들은 대학의 자율권에 대한 분명한 침해임을 인식하고 빠른시일내에 대응책을 마련, 정상적으로 학생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자율은 결코 타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므로 학생회비 감축문제는 학교측과 계속 대화와 타협을 해가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또한 학교당국도 진정으로 대학의 자율을 원하다면 획일적인 문교부 정책에 얽매이지말고 학생들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으로 대학의 자율권을제한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이 척결되어야 한다. 대학의 자율권확보는 이제 당위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필연적인 것이다. 이제와서 학원의 민주화는 사회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진실인 것이다.

<취재부>

◇…학생활동의 자율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학원 현실에 느낌보다 관심을, 관심보다는…

취재노트

◇…아기 獅형의 고민

입학과 더불어 새로운 분위기와 호기심에 들뜬 어린 獅형들에게 고민이 생겼다는데.

진군하는 ×새와 진지한獅형들의 외침에 재치기를 연발하는 獅형의 머리속에는 『도대체 왜!왜!』라는 아우성이 맴돌었을 뿐 그 속사정 몰라.

찟빛 현실속에서도 힘차게 자랄 獅형들이여 학원의 현실에 느낌보다는 관심을 관심보다는….

◇…이제 그만 벗어나고파!

갓 태어난 獅형들 눈에 들보였던 풍물이 있었으니, 오리엔테이션에서 보인 응원단의 힘찬 몸짓이 바로 그것인데.

정작 경기장에서 펼쳐야할 사자춤이 왕관속에서 펼쳐져, 몇지기는 했소만 노트子 마음은 서커스단에 갇힌 사자춤을 보는 듯.

함성 높은 초원에서 사자춤 보게될 날은 그 언제…?

◇…확려한 컴백

한동안 들하던 로마군단 아저씨들, 신춘이 도래하니 화려한 컴백을 하고 계시다는데.

며칠전 거행된 총학생회 발대식은 겨우내 갈고 닦은 막강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좋은 무대가 됐다더니 그 재기무대 지켜본 노트로 할 말은 오직 이것뿐 『우리의 믿음 치솟아 민주화 오리라』

◇…확실한 대책

새학기 벽두부터 고황골에 난데없는 찬바람이 일어 신학기 기분을 완전히 쓱싹 했다는데.

사실인즉, 지난해부터 표면화됐던 모 단대 교육환경 문제가 완결을 보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럴때 관계자의 말은 항상 「확실히」 또 「확실히」 뿐이라고.

◇…자질이 어째…

신입생이 입학하자 서천리 고을이 활기를 되찾아 식당은 초만원 난장판이라는데 사연인즉 학생들의 셀프-서비스(self-service)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이 그 가장 큰요인중 하나라.

좋은 대학환경을 요구하는 것도 학생의 권리라지만, 우리의 학교 우리 자신이 아끼는 애교심도 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비야 비야 오지마라

서천리고을 산대·사회대가는 길이 포장이 되지 않아 獅형을 불평. 더우기 길은 비탈이라 본의 아닌 등산을 매일 하신다고. 비가오는 날이면 어떡 할려는지 윗분들 그저 비 안오기만을 기다리는 눈치. 언제까지나 천우신조가 따르실지 의문이오만, 이제 獅형들과 同苦同樂하심이 어떠하실지.

◇…두껍아 두껍아

우수·경칩 다 지나고 개구리는 뛰어나오는데 한마리 우리네 두꺼비는 봄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고.

이유인즉 이상기온 선상의 한반도 인지라 윗분 말씀에 원치않는 동면에 들어갔다나.

끝없는 이 겨울의 끝은 어드메인지 아득하오 그려.

◇…난중의 미담

지난 6일 교내시위때 있었던 아름다운 에피소드하나.

밀고 당기는 공방전, 난무하는 최루탄 쌍돌의 와중에 화제가 발생했는데 서로의적이 이번에는 하나가 되어 진화작업을 훌륭히 수행했다나

역지수문장 역할에 수고많으신 ×새 여러분 이번을 계기로 아예 민주×새로 변신이라도 하심이….

학원소식

알림란은 여러분의 난입니다

【서울캠퍼스】

알림

총학생회 연극부 「경희극장」 제32기 신입부원 모집=2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모집마감이며, 장소는 학생회관 7층부실. 오디션은 오는 17일 오후 6시 同장소에서▲AFKN 청취회 개강=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문리대 108강의실에서 실시, 시간은 오후 5시부터 1시간30분동안▲음대작곡과 신입생환영회=오는 14일 오후 4시30분 따뷰특별실에서 ▲ECOMA정기집회=오는 13일 오후5시 정경대 505강의실에서 한국 농업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김응남 (경제·3) 의 발표가 있다.

▲문리대 연극부 신입부원 모집=오는 20일까지 오후 5시이후 문리대 308강의실에서 수시모집▲체대생 대상 영어·일본어강좌=오늘부터 7월15일까지 4개월간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5시부터 6시30분까지 실시한다. 강의실은 영어가 체대 310호실, 일본어 307호실이며 신청은 체대 교무실로 ▲경희응원단 신입부원 모집=오는 20일까지 학생회관7층 응원단 실로.

【수원캠퍼스】▲경희극회 신입회원모집=지난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클룸에서 접수. 평가 기준은 설문 작성, 실기테스트, 면접이며 모집 부문은 Cast. Staff 이다. ▲자연과학대 학생회실 이전=이공교육관103호실로(공대 학생회옆)▲자연과학대 여학생탈의실 운영=이공교육관 307호옆▲탈무드 6기 모집=남·여 신입생에 한하며 기타1, 기타2, 올겐, 베이스기타, 드럼, 보컬, 엔지니어부문이며 오는11일 오후5시까지 이공교육관 6층 연습실로 접수. ▲일문과 원어 웅변대회 참가자모집=5분에서 7분 분량의 원고 내용으로 3월말까지 학회실로 인원 제한없음

동문회및신입생환영회

【서울캠퍼스】

안내

▲순천고신입생환영회=오는14일 오후5시대빈정▲신명·부평고 신입생 환영회=오는 14일 오후5시 노땅▲천안중앙고 신입생 환영회=오는11일오후 5시30분 녹원 ▲선정동문 신입생 환영회=오는13일오후5시 제임스딘▲서라벌고 신입생환영회=오는 14일 녹원 ▲한성고 신입생 환영회=오는 12일오후5시 녹원▲숭일고신입생환영회=오는12일 오후5시공대앞돌다방 ▲충암동문 신입생환영회=오는14일 오후5시30분 소락원.

▲대광·신광고 신입생환송회=오는 10일 오후 5시30분 녹원▲명지남·녀신입생환영회=오는 14일 오후 5시 녹원 ▲마산여학생 신입생환영회=오는 12일 오후 5시30분 노땅▲관악고 신입생환영회=오는12일 오후 5시 녹원▲휘경여고 신입생환영회=오는 14일 오후 5시30분 소락원

【수원캠퍼스】▲진주동명고=오늘 오후5시 이공교육관 휴게실▲한양공고=오늘 오후5시30분 이공교육관 휴게실▲부산대동고=오늘 오후5시 외국어교육관 휴게실▲선린고=오늘 오후5시 외국어교육관 휴게실▲용문고=오늘 오후 5시30분 이공교육관 휴게실▲마산경상고=오늘 오후5시 외국어교육관휴게실▲남강·미림고=오늘 오후5시30분 이공대교육관 휴게실 ▲영등포고=11일 오후5시 이공교육관 휴게실 ▲경문고=11일오후5시30분 이공교육관 휴게실 ▲폐주향우회=11일 오후5시 이공교육관 259강의실▲중동고=11일 오후5시 이공교육관 휴게실▲용산수도고=11일 오후5시 이공교육관 휴게실▲배재고=11일 오후5시 이공교육관 휴게실▲보천·동명고·삼보여고=12일오후5시 국기게양대앞▲진주고=12일 오후4시30분 이공교육관 휴게실▲상문·은광여고=12일 오후5시 이공교육관 휴게실▲중앙고=13일 오후5시 외국어교육관 휴게실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습득

◇학생증=▲강혜정(지리·2) ▲성정은(생물·2) ▲전신혜(기악·3)▲전용우(경제) 손성수(의예·2) ▲길용복(지리·2)▲장병규(무역·2) 송연성(신방·4) ▲조재원(회계·3) ▲김재현(법률)◇도서대출증=▲이재남(경영2) ▲윤수열(기계·4) ▲나 준흠(경영·3) ▲김성덕(섬공·4) ◇갈색수첩=▲김형구(의본)▲김장선◇금테안경=정경대 304강의실에서

【수원캠퍼스】◇학생증=정종호(물리·2) ▲김영준(조경·2) ▲박진(체육·3) ◇청색수첩=▲이재윤 (태권도 4) ◇외환은행 예금통장=강정원

습득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분실

◇고동색 가방, 지난달 25일 도서관 제1열람실에서 분실=김종오(경제·2)

◇학생증·주민등록증이 든 수첩. 도서관에서 분실=임혜경(한예·2)

【수원캠퍼스】◇학생수첩·학생증·주민등록증=허재옥 (불문·1)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

UO 기

▲김선모(영문·3)▲김지혜(영문·4) ▲박여선 (의상·4) ▲윤병기(사학·4) ▲문준호 (영문·2) ▲김성봉 (법과·1) ▲정주석 (행정·2) ▲강성훈 (경영·2) ▲박상필 (정외·3) ▲남중철 (경제·3) ▲황태성 (경제·4) ▲김범수 (회계·4) ▲김향희 (영교·3) ▲김인병 (한본·3) ▲이석건 (의본·4) ▲전중식 (의본·4) ▲이주경 (한본·1) ▲김성진 (한본·4) ▲손해복 (한본·3) ▲김진한 (치본·2) ▲문한종 (기악·2) ▲강경임 (섬공·3) ▲오재석 (산공·3) ▲이재범 (건공·4) ▲이규영 (섬공·4)

【수원캠퍼스】▲이보형(체육·4) ▲양일동 (태권·2) ▲홍정희 (불문·2) ▲이현희 (체육·2) ▲심광섭 (일문·2) ▲임용근 (회계·2) ▲김경환 (기숙사 108호) ▲김영국(우주과·2) ▲정재영 (토목·2) ▲전오순 (태권·3)

삼양사의 집념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승자는 관중들로 부터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강한 정신력으로 전 구간을 꾸준히
달려야 하는 마라톤—
마라톤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며,
마라토너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수많은 관중들로 부터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삼양사의
연구·노력은 계속되고 있읍니다.

삼양사는 1924년 창업한 이래
꾸준히 축적해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공급해 드리기 위한
연구·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고객여러분의 격려와 신뢰에 보답하고자
진취적인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있읍니다.

삼양사

주요생산품 ●설탕 ●배합사료 ●수산물 ●축산 ●이온교환수지 ●견방사(Silk) ●폴리에스텔 SF ●폴리에스텔 FIL